

엘렌 럽튼 저서의 수용 과정을 통한 동시대 디자인 담론

Contemporary Design Discourse Through the Reception of Ellen Lupton's Work in Korea

주저자 First Author: 김형민 Kim Hyungmin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 석사과정 MFA Program,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박지나 Park Jina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강사 Lecturer of College of Design, Hongik University

- 동시대 디자인 담론과 시각 디자인 이론의 수용
 - 연구 배경과 목적
 - 선행 연구 검토와 연구 문제
- 엘렌 럽튼과 디자인 이론의 수용
 - 엘렌 럽튼과 디자인 철학
 - 엘렌 럽튼의 저서 분석
- 디자인 이론의 수용 경로 분석
 - 엘렌 럽튼의 저서의 한국적 수용 경로
 - 한국적 수용 경로와 문제점
- 동시대 디자인 담론의 성찰적 수용을 위하여

투고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 및 게재확정일: 2025년 1월 27일

게재일: 2025년 2월 28일

Received Date: December 30, 2024

Accepted Date: January 27, 2025

Published Date: February 28, 2025

pp.186-201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186187

요약

이 연구는 동시대 디자인 연구자이자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저술가 엘렌 럽튼(Ellen Lupton)의 디자인 담론이 한국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럽튼의 저서 원문과 한글 번역본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럽튼의 디자인 철학과 담론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자는 단순 번역을 통한 탈맥락적 수용의 한계를 조명하여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디자인적 번역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찰적 디자인(Reflective design)' 접근법을 제안하여, 서구 중심의 디자인 담론을 한국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이론과 실무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디자인 이론이 한국의 시각 디자인 교육 및 실무 환경에 더 심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 시각 디자인 문화의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핵심어

동시대 수용사, 디자인 이론, 문화 번역, 맥락화, 성찰적 디자인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how the work of Ellen Lupton, a design researcher and author based in the United States, is received within the Korean context.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Lupton's original texts and their Korean translations, the author explores the interpretation and adaptation of Lupton's design philosophy and discourse in Korea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ighlighting the limitations of decontextualized translation, the author underscores the need for culturally responsive design interpretation. This paper proposes a 'Reflective Design' approach as a key strategy for integrating Western design discourse into the milieu of Korean design and culture. By bridging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stronger foundation for the application of design theory to education and professional practice, ultimately enriching Korea's visual communication design culture and its potential global presence.

Keywords

contemporary reception history, design discourse, cultural translation, contextualization, reflective design

1. 동시대 디자인 담론과 시각 디자인 이론의 수용

“그래픽 디자이너는 사회를 표현한다.”¹ 동시대 디자인 연구자이자 저술가, 교육자인 엘렌 럽튼(Ellen Lupton, 2021)은 『엑스트라 볼드(Extra Bold)』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그 사회를 대변하는 생산자로 지칭한다. 역사적으로 시각 디자인은 단순히 시각적 표현에 머물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 속에서 각 시대의 사회상을 거울처럼

1 Ellen Lupton, 『Extra Bold』,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21, p.9: "Graphic designers produce representations of society, and they help create access to information and ideas."

188189

반영해 왔다. 따라서 한국의 시각 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회상을 이해해야 한다.

20세기 한국 사회는 전반기의 일본 식민지를 통해서, 1945년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 내에서 서구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근대화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문화적 충돌과 동화, 융합, 변용을 겪었고, 서양 문화 형성의 이론과 체계는 그 수용 과정에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변형되어 수용되거나, 맥락이나 순서가 뒤바뀌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시대 문화 이론가 코디 최(2010)는 한국이 서양 문화에 대한 강박으로 인해 미국의 문화를 분별력 없이 단편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한국만의 정체성과 문화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해방 이후 미국의 학술과 문화의 뿌리가 혼성적이고 다원주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양 문화 그 자체로 수용한 결과 일탈적인 해석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한다.² 디자인 평론가 최범(2018) 역시, 서양 디자인사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역사로 보기보다는 ‘타자의 역사’로 인식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한국 근대가 서양 근대와의 지배·종속 관계 속에서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동시대 문화 연구와 한국적 맥락에서의 디자인 이해 및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³

한국에서 수용된 서구 디자인 이론도 본래 형성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받아들여지거나 부분적으로 해석되거나 왜곡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 시각 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각 디자인 수용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각 디자인 수용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연구 배경과 목적

한국의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수용된 서구 디자인 이론은 대표적으로 바우하우스 이론과 교육으로, 유럽에서 시작되어 국제 양식(International Style)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 모던 디자인의 대표적 사례로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다.⁴ 이후 바우하우스식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과 저항으로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던 디자인과 함께 동시대 디자인 이론과 담론을 창출했다. 동시대 디자인 이론가들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을 새롭게 제시하며 다양한 담론을 형성해 왔다.

동시대 대표적인 국제적인 디자인 이론은 주로 스티븐 헬러(Steven Heller)와 리처드 뷰캐넌(Richard Buchanan), 엘렌 럽튼 등을 비롯한 동시대 디자인 이론가들에 의해서 담론화되었는데, 이러한 동시대 디자인 이론의 수용은 이들의 발표와 논문, 그리고 저서들이 국내로 번역되며 이루어졌다.

먼저, 스티븐 헬러는 <뉴욕 타임스>의 아트 디렉터를 맡아온 미국 그래픽 디자인의 최고 권위자이자, 정규적 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고 실무와 독학을 통해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습득했다.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VA) 석사 과정 디자인 프로그램의 공동 학과장이면서 디자인 비평 석사 과정의 공동 설립자인 그는 디자인의 정치, 역사적 서사를 중요시하여 행동주의적 디자이너 양상에 주력했으며, 교육자이자 저술가로 왕성히 활동하며 무려 200권이 넘는 책을 저술 및 편집하였고, 그중 16권이 국내에 번역되어 있다.⁵

다음으로 리처드 뷰캐넌은 디자인 역사, 이론 및 비판을 다루는 학술 저널인 『디자인 이슈(Design Issues)』의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 연구와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이론가로, 난제(Wicked Problems)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사고를 제시하며, 디자인의 4가지 차원(Four orders of Design)을 소개했다.⁶ 다양한 학문과 실무 영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 그의 연구는 국내에서도 널리 수용되고 있다.⁷ 그러나 국내에 번역된 그의 저서는 『디자인 담론』 한 권뿐이다.

마지막으로 엘렌 럽튼은 그래픽 디자이너, 큐레이터, 작가, 비평가, 교육자로, 럽튼은 디자인과 문화를 다학제적으로 연구하며, 대중 교육과 학문적 연구를 융합하고자 거의 40년간 30여 권의 저서를 집필하며 미국 디자인 연구와 담론 생성에 크게 기여했다. 럽튼의 철학과 이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인 미국 그래픽아트협회(American Institute of Graphic Arts, AIGA)의 디자인 컨퍼런스나 『디자인 이슈(Design Issue)』와 같은 학술 매체를 통해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럽튼의 경우는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번역된 럽튼의 책은 1996년 출간된 『바우하우스와 디자인 이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번역된 럽튼의 책은 총 14권(개정판 포함 15권)에 이르며, 이 중 10권이 비즈앤비즈 출판사를 통해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긴다. 많은 동시대 디자인 이론가들의 저서 중 한국에서 유독 럽튼의 디자인 책이 특히 많이 받아들여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혹시 럽튼의 담론이 형성된 문화적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표현적 측면에서만 수용된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에 앞서서 아직 국내에는 럽튼의 담론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나 구체적인 연구가 미비한 상황인데, 철학적 이해나 본질적 연구가 배제된 채 그녀의 책이 14권이나 번역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연구에서는 엘렌 럽튼의 저서들의 수용경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동시대 문화적 이해와 맥락에 따른 디자인 담론 수용의 과정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 조사이며, 문헌을 통한 수용경로의 분석이다.

그러나 디자인 담론 수용사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의 디자인 정체성과 디자인 역사를 중심으로 한 수용사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자 심층 인터뷰, 건축, 아카이빙 등의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본 고에서는 디자인 이론의 수용사를 알아보기 위해 엘렌 럽튼의 철학과 그녀의 저서를 원전과 번역본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검토와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동시대 디자인 담론의 수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엘렌 럽튼의 철학과 역사적 기록과 해석, 비교를 통한 사회적 수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6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인 학술 저널인 『디자인 이슈(Design Issues)』에서 실린 뷰캐넌의 「디자인 연구와 새로운 학습(Design Research and the New Learning)」은 디자인 이슈를 통틀어 가장 많이 인용된 글 중 하나이다.

7 Stephen J. Beckett(2016)의 「Subjectivity and Meaning as Aspects of Product」, 홍수빈(2024), 김승인(2024)의 「리처드 뷰캐넌의 인터랙션 디자인 개념을 기반한 복합문화공간 프레임 워크」에서 알 수 있듯이 뷰캐넌의 연구와 이론은 국내 번역서의 개수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코디 최, 『동시대 문화 지형도』, 컬처그라퍼, 2010, pp.9-19

3 최범, 『최범의 서양 디자인사』, 안그래픽스, 2018, pp.192-203

4 이봉만·나건, 「한·중·일 그래픽에 나타난 서구 디자인의 영향 - 유입, 수용, 재해석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기초조형학회』, 19권 6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8, pp.543-555

5 Steven Heller, <https://design.sva.edu/cofaculty/steven-heller> (2024.12.20.)

연구 제목	내용	연구 대상 및 분야	연구자 (발행년도)
한국 디자인 정체성 논의의 향방: 1997년-2010년 개최된 국내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디자인 정체성은 일상 문화, 동시대적 공감 등 제한되지 않은 것들의 균형으로 형성됨	한국 디자인 정체성을 논의한 전시 사례 분석	안주미, 최익서 (2011)
Contemporary Traditions: South Korea's Emerging Design Identity—An Exploration among Professional and Academic Design Experts Aged 30-50	한국 디자인 정체성은 유동적이며, 확립되지 않음. 한국 디자인 산업의 제도적 접근과 실무 환경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체론적 이해의 필요성 확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이해와 문헌 연구. 국내 디자인 전문가 및 최고 경영자 12명, 국내 디자인 교수 8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진행	Sven Schelwac, Changmyong Jeon (2017)
Modernism and Post- colonialism in Korean Architecture	한국 건축은 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적 맥락에서 외부 영향을 재해석하며 독창적 정체성을 구축하며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며 발전함	20세기 한국 건축에 모더니즘과 후기 식민주의 건축이 미친 영향 탐구	이상훈 (2002)

[표 1] 선행 연구 요약

위하여 먼저 럽튼의 인터뷰, 비평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영문, 한글 번역본으로 분류하여,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인물로 받아들여지는지 알아보려 한다. 다음으로는 럽튼의 저서 원전과 번역본의 해석적 비교 및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번역된 저서를 기반으로 수용 과정에서 생긴 해석적 혹은 맥락적 오류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자의 철학, 그의 발전과 변화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럽튼의 철학과 담론이 한국 문화권에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되었는지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1980년부터 럽튼이 집필한 글과 저서, 인터뷰로 한정한다. 30여 권의 저서 중 한글로 번역된 책 4권⁸을 선정해서 원전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선행 연구로는 [표 1] 안주미와 최익서, 스벤 쉘바흐(Sven Schelwach)와 전창명, 이상훈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안주미(2011)와 최익서(2011)는 전시 사례와 아카이빙을 기반으로 한국의 디자인 정체성을 문화적 전통과 동시대적 공감 등 여러 요소 간의 균형으로 제시했다.⁹ 쉘바흐(2017)와 전창명(2017)은 30-50대의 한국의 디자인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로 한국 디자인 정체성의 전체적인 이해 및 탐구를 위한 연구를 통해 전문적 디자인 실행(Professional design practice)과 학문적 디자인 연구(Academic design studies) 간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한다.¹⁰ 한국 디자인의 정체성을 유동적인 개념으로 제시하며, 디자인 커뮤니티와 제도 간의 괴리로 인한 한국 디자인 정체성의 정의 불가능함을 증명한다. 나아가, 한국의 디자인이 사회문화적 현상과 통합할 수 있는 다차원적 틀 안에서 담론을 통해 끊임없이 정체성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주장했다.¹¹ 이상훈(2002)은 건축 분야에의 한국 디자인

8 『바우하우스와 디자인 이론(The ABC's of ▲■●: The Bauhaus ad Design Theory)』,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리포트(Design Writing Research: Writing on Graphic Design)』, 『타이포그래피로 생각하기(Thinking with Type)』, 『그래픽 디자인 새로운 기초(Graphic Design: The New Basics)』.
9 안주미·최익서, 『한국 디자인 정체성 논의의 향방: 1997년-2010년 개최된 국내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5권 1호, (한국디자인학회, 2012), pp.25-35
10 Sven Schelwach, Changmyong Jeon, (2017), p.43-54
11 Sven Schelwac, Changmyong Jeon, (2017), pp.49-53

190191

정체성을 식민 시대 모더니즘의 초기 수용을 통해 서술한다. 모더니즘 스타일은 근대성이 표출된 결과일 뿐인데, 이를 모른 채 결과물이자 건물의 양식만을 “서양화” 그 자체로 받아들인, 잘못된 가정하에 일어난 수용을 다룬다. 이러한 괴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 근대성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한다.¹²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의 디자인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는 타 문화의 맥락적 수용의 필요성과 전체론적인 관점을 통한 이해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선행 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엘렌 럽튼의 디자인 담론은 한국의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둘째, 번역 및 해석 과정에서 발생한 맥락적 오류와 한계는 무엇인가? 셋째, 럽튼의 철학과 담론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해석을 토대로, 그녀의 담론이 한국에서 어떤 맥락으로 수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2. 엘렌 럽튼과 디자인 이론의 수용

2.1. 엘렌 럽튼과 디자인 철학

엘렌 럽튼은 미국의 볼티모어(Baltimore)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디자인 연구자이자 저술가, 교육자, 큐레이터로 디자인과 문화의 관계를 다학제적으로 탐구해 왔다.¹³ 2003년에 메릴랜드 예술대학교(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MICA)에서 그래픽 디자인 석사 과정을 창립한 이후 현재 해당 학과의 의장을 맡고 있다. 또한 뉴욕의 쿠퍼 휴잇 스미스소니언 디자인 박물관(Cooper Hewitt, Smithsonian Design Museum)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했다.¹⁴

1980년대 말부터 약 40년간 미국 시각 디자인 산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한 럽튼의 디자인 철학은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발전해 왔다. 럽튼은 쿠퍼 유니언 대학(The Cooper Un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Art)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며 순수 예술, 글쓰기,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탐구해 왔다. 이후 럽튼은 현 남편이자 펜타그램(Pentagram)의 파트너인 애벗 밀러(Abbott Miller)와 함께 1989년 Design / Writing / Research (디자인 / 편집 / 연구) 스튜디오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디자인과 글쓰기, 연구를 결합한 활동을 시작했다.¹⁵ 특히 그녀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간의 논쟁에 매료되어, 문화적, 개념적 관점에서 그래픽 디자인의 구조를 탐구하며, 저자로서의 디자이너 개념을 개척했다.¹⁶

럼튼의 초기 연구 철학(1980-1996)은 바우하우스와 모더니즘의 근대성을 탐구하는 데에 기반을 두었다. 허브 루발린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연구 센터(Herb Lubalin Study Center of Design and Typography)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며 타이포그래피와 동시대적 서사 연결을 위한 전시와 간행물을 주관했다. 이 시기 럽튼의 연구는 디자인의 구조적 측면을

12 Lee Sang Hun, 『Modernism and Post-colonialism in Korean Architectur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5 No. 2,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2, p.283-300
13 Ellen Lupton, <https://www.mica.edu/undergraduate-majors-minors/graphic-design-major/ellen-lupton>, (2024.12.9.)
14 Ellen Lupton, <https://ellenlupton.com/Curriculum-Vitae>, (2024.12.10.)
15 Design Couples: Ellen Lupton and Abbott Miller, <https://www.printmag.com/designer-interviews/design-couples-ellen-lupton-and-abbott-miller>, (2024.12.10.)
16 Phillip B. Meggs, 『Meggs' history of graphic design』, Wiley, 2016, pp.581-583

역사적 맥락에서 조명하며, 동시대 시각 문화와 서사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¹⁷

럽튼의 중기 철학(1997-2008)은 시각 디자인 교육에 집중되었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메릴랜드 예술대학교의 학부 프로그램 학과장으로 재직하며, 그래픽 디자인 교육에서 디지털 도구와 소프트웨어의 시각 언어를 재해석하고 배우는 관점에서 본질을 탐구하는 입문서를 집필했다.¹⁸ 2003년에는 메릴랜드 예술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 석사 과정을 창립하며 디자인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¹⁹ 이 시기에 럽튼은 타이포그래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을 대중과 공유하고자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고, 디자인 입문서를 통해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생산하여 디자인을 대중화하고자 했다.

럽튼의 성숙기 철학(2009-2017)은 사용자를 디자인의 협력자로 정의하며, 사용자와 디자이너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디지털 협업 도구의 발달에 따라, 디자인은 단순한 결과물 생산을 넘어 창의적 가능성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럽튼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 인간 중심적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의 필요와 욕구, 행동 등을 더 깊이 이해하는 포괄적 접근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다각적이고 포용적인 문제 해결사로서 디자이너의 역할을 제시한다.

시기	디자인 철학 및 접근	디자이너의 역할
초기 경력 (1980-1996)	근대성과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실용적, 기능적인 디자인으로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디자인 이론과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주장	프로젝트 결과물 중심의 전통적 문제 해결사이자 커뮤니케이터
중기 경력 (1997-2008)	디자인 교육과 대중화, 그래픽 디자인이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적 서사에 미치는 영향 탐구, 사용자 관점의 디자인 담론 형성 및 사용자 피드백 기반의 디자인 연구 시작,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자료를 통해 디지털 도구와 프로세스를 디자인의 핵심으로 탐구	정보 제공자이자 교육자
성숙기 (2009-2017)	협력과 상호작용, 디자인 과정에서의 중요한 협력자이자 혁신의 동력으로 사용자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기술 탐구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 문제 해결사
최근 활동 (2018-현재)	사회적 도구로서의 디자인, 공공의 의과 협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디자인 과정에서의 협력과 공동 창작을 탐구	환경, 다양성, 포용성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스토리텔러

[표 2] 엘렌 럽튼의 디자인 연구 철학 진화를 보여주는 표

오늘날 럽튼의 철학(2018-현재)은 디자인을 사회적 도구이자 변화의 매개체로 제시한다. 인간 중심적 디자인, 참여적 디자인 등을 통해 디자인의 사회적 영향을 고찰하며, “유럽 중심의 모던 디자인”을 넘어선, 평등한 세상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권하고 있다.²⁰ 이는 그녀가 지속해서 탐구해 온 다학제적 접근 방식과 연결되며, 디자인을 시각적 문화적 사회적 시도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표 2]에서 시대의 흐름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럽튼의 철학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한

17 Curriculum Vitae, <https://ellenlupton.com/Curriculum-Vitae> (2024.12.20)
 18 Ellen Lupton, 『Graphic Design The New Basic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and Maryland Institute of College of Art, 2018, pp.8-9
 19 Curriculum Vitae (2024.12.20.)
 20 Ellen Lupton, (2021), pp.9-11

192193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디자인 연구와 글쓰기, 교육, 큐레이팅 등 다학제적 접근으로 디자인을 연구하는 점이 럽튼의 특징이다. 남편이자 협력자인 밀러는 럽튼이 디자인을 언어, 문화, 유머와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시각적, 스타일적 시도라고 설명한다.²¹ 이처럼 럽튼의 ‘디자인 연구와 글쓰기’는 동시대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하는 ‘일’과 관련된 ‘이론과 역사’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디자이너들에게 실질적인 자료이자 동시에 디자인 ‘담론’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2. 엘렌 럽튼의 저서

원문 제목(발행 년도)	내용	디자이너의 역할	출판사	번역자
The ABC's of [Triangle Square Circle]: The Bauhaus and Design Theory (1991)	바우하우스의 철학과 이론을 기하학적 도형으로 설명	『바우하우스와 디자인이론』 (1996)	도서출판국제	박영원
Design writing research: Writing on Graphic Design (1996)	그래픽 디자인을 학문적, 철학적 관점에서 재조명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리포트』 (2002)	디자인하우스	이정선
Thinking with Type (First Edition) (2004)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와 맥락을 소개하며, 실무에 적용 가능한 지침 제공	『생각하는 디자인: 타입편』 (2007)	비즈앤비즈	김성학
D.I.Y. Design It Yourself (2005)	디자인의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가이드	『DIY 디자인 쉽게 배우고 따라하기』 (2007)	비즈앤비즈	김성학 서경원
D.I.Y. Kids (2007)	어린이의 창의적 탐구를 통한 개인적, 사회적 성장 도모 및 디자인의 민주화 개념 확장	『아이들과 만드는 DIY』 (2008)	비즈앤비즈	김성학
Graphic Design: The New Basics (First Edition) (2008)	정적 매체를 중심으로 의미있는 메시지, 풍부하고 구체적인 경험 전달을 위한 디자인 구성 요소 소개 및 소프트웨어 가이드북	『그래픽 디자인 새로운 기초』 (2009)	비즈앤비즈	원유홍
Graphic Design Thinking: Beyond Brainstorming (2011)	창의적 사고와 표현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 씽킹 기법 소개	『그래픽 디자인 씽킹』 (2012)	비즈앤비즈	이재선, 윤지선
Thinking with Type (Second Edition) (2010)	시각적 소통 도구이자 의미 창출 매체로서의 타이포그래피 입문서	『타이포그래피 들여다보기』 (2013)	비즈앤비즈	김성학
Type on Screen (2014)	디지털 매체를 위한 타이포그래피	『스크린 타이포그래피』 (2015)	비즈앤비즈	김주성
Beautiful Users: Designing for People (2014)	인간 중심 디자인의 철학과 참여적 디자인에 기반한 방법론 소개	『뷰티풀 유저스: 인간을 위한 디자인』 (2015)	한스미디어	김예원
Graphic Design Thinking: Beyond Brainstorming (2011)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고 기법과 방향성 제시	『그래픽 디자인 씽킹- 창의적 사고와 표현』 (2016 개정판)	비즈앤비즈	이재선, 윤지선

21 Design Couples: Ellen Lupton and Abbott Miller (2024.12.10.)

Design Is Storytelling (2017)	서사적 접근을 통한 디자인 과정을 통한 감정적 연결	『디자인은 스토리텔링이다』 비즈앤비즈 (2019)	이소은
Graphic Design: The New Basics (Second Edition) (2015)	인터랙티브 미디어 트렌드에 따라 확장한 디자인 기초 원칙 제시	『그래픽 디자인뉴 베이식』 비즈앤비즈 (제2판) (2019)	조은형
Indie Publishing: How to Design and Produce Your Own Book (2008)	디자이너, 작가, 예술가를 위한 독립 출판 가이드	『독립출판 교과서』 (2019) 유엑스리뷰	소슬기
Extra Bold (2021)	이분법적 사고와 권력에 반대하며,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	『엑스트라 볼드』 (2024) 안그래픽스	정은주

[표 3] 엘렌 럽튼의 저서 중 국내에서 번역 및 출판된 15권

3. 엘렌 럽튼과 디자인 이론의 수용 경로 분석

3.1. 엘렌 럽튼의 저서의 한국적 수용 경로

이 연구에서 첫 번째로 원전과 대조해서 분석할 책은 『바우하우스와 디자인 이론(The ABCs of ▲■●: The Bauhaus and Design Theory)』,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리포트(Design Writing Research: Writing on Graphic Design)』, 『타이포그래피로 생각하기(Thinking with Type)』, 『그래픽 디자인 새로운 기초(Graphic Design: The New Basics)』이다.

먼저 한국으로 처음 번역되어 수입된 엘렌 럽튼의 저서는 『바우하우스와 디자인 이론(The ABCs of ▲■●: The Bauhaus and Design Theory)』이다. 이 책은 1991년 쿠퍼 유니언과 프린스턴 건축 출판사에서 초판이 출간되었으며, 1996년에 박영원의 번역으로 '도서출판 국제'에서 국내에 소개되었다. 이 책은 모더니즘의 전설로 여겨지는 바우하우스를 정신분석학, 기하학 구조, 유아 교육과 대중문화를 통해 설명하며 당시 바우하우스의 정치사와 이론적 맥락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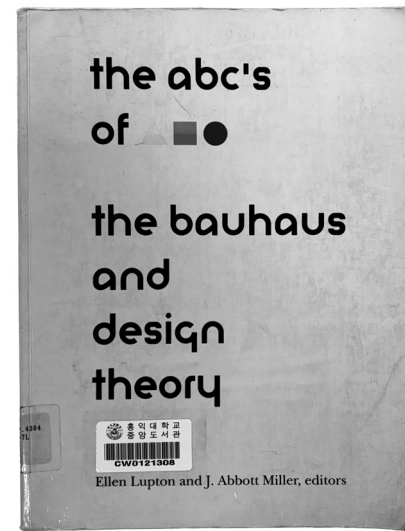
다음 [그림 1, 2]와 같이, 원전과 번역본의 표지 디자인에는 큰 차이가 있다. 원전 제목은 삼각형, 사각형, 원으로 표현된 시각 기호를 사용하여 책의 주제를 직관적으로 표현했으나, 번역본은 『바우하우스와 디자인이론』이라는 간결한 텍스트 제목으로 대체되었다. 더하여, 미색의 종이에 글자만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한 미니멀한 원문 디자인과 달리 번역본은 본문에 실린 도표를 이용해 내용적 요소를 시각화했다.

또한, 원 표지에 담긴 “ 헤르베르트 바이어(Herbert Bayer)의 유니버설(Universal) 서체”와 관련된 중요한 설명이 번역본에서 누락되었다. 유니버설은 1925년에 바이어가 디자인하고, 1991년 매튜 카터 (Matthew Carter)가 다시 제작한 서체로 바우하우스의 철학을 대표하는 타이포그래피이다. 이러한 서체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책의 주제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나, 한글과 영문의 구조 차이상 번역본에서 누락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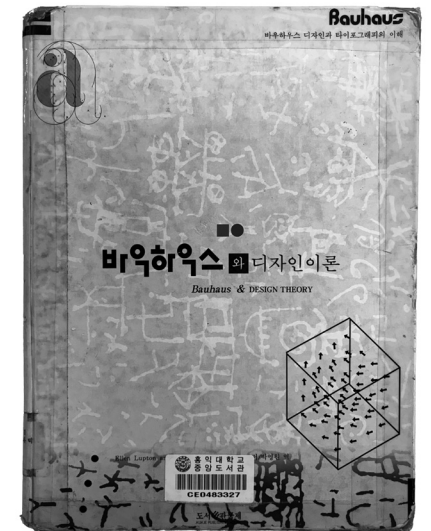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 책은 1991년 미국에서 진행된 전시 ‘The ABCs of ▲■●: The Bauhaus and Design Theory from Preschool to Post-Modernism’의 동반 자료로

22 Ellen Lupton, J. Abbott Miller, 『The ABC's of ▲■●: The Bauhaus and Design Theory』, Cooper Union and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1, p.64

194195



[그림 1] The ABCs of ▲■● [Triangle Square Circle]: The Bauhaus and Design Theory, 표지



[그림 2] 『바우하우스와 디자인이론』, 표지

발행되었다.²³ 라는 내용과 같이, 럽튼의 초기 철학을 맥락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도 번역본에서 배제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번역본으로는 1996년에 럽튼과 밀러가 집필한 『Design Writing Research: Writing on Graphic Design』이다. 이 책은 후기 구조주의와 해체주의를 기반으로 그래픽 디자인을 분석하며, 비평적 글쓰기와 디자인의 결합을 탐구한다. 이 책은 2002년에 <디자인 하우스>의 단행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이론’, ‘미디어’, ‘역사’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 책은 후기 구조주의 이론을 동시대 디자인에 적용하고 그래픽 디자인의 비평적 가능성을 논의한다.²⁴

영문 원전과 번역본은 동일한 판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조 분석이 용이하다. 원전 머리말에서 럽튼과 밀러는 “디자인 자체를 설명과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고 기존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단순히 나열하는 무관심한 편집 방식을 거부한다.”고 명시한다.²⁵ 이는 그들의 글쓰기 형태 중에서도 ‘그래픽의 개입’을 통한 디자인 실천이나, 연표를 임의로 수정하고 개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저자’로서의 글쓰기 방식으로 나타난다. 럽튼과 밀러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맡는, 자의식을 지닌 저자’라는 사상은 영문 원본에서 구성한 그리드 형식을 번역본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충실히 구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글과 알파벳의 문자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의 동일화’는 글자 수 차이, 서체의 구조적 차이 등에서 억지로 꿰맞춘 듯한 인상을 주며 본문의 가독성까지 저하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또한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원전 마지막 부분에 포함된 ‘스칼라(Scala) 서체 사용’에 대한 설명 역시 번역본에서는 빠졌다. 이는 럽튼의 ‘일관된 목소리’를 대표하는 서체이자

23 Ellen Lupton, J. Abbott Miller, (1991), ibid., p.64

24 Ellen Lupton, J. Abbott Miller, 『Design Writing Research: Writing on Graphic Desig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pp.viii- x

25 Ellen Lupton, Abbott J. Miller, (1996), p.viii: “In their critical writing, Lupton and Miller use design itself as a tool of explication and analysis. they reject the indifferent picture-editing and semi-integration of image and text found in most graphic design publi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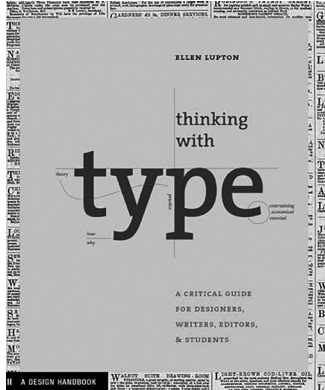
타이포그래피로, 원전을 통해 독자는 저자의 철학적 일관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²⁶ 그러나 영문 글꼴이 한글 번역서에 사용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맥락적 정보 제시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번역본은 럽튼이 MICA에서 그래픽 디자인 석사 디렉터로 활동하며, 필요한 교재가 없어서 직접 집필한 책인 『타이포그래피로 생각하기(Thinking with Type)』이다. 2004년에 출간된 이후 프린스턴 건축 출판사(Princeton Architectural Press)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여러 차례 개정되어 2024년에는 3판이 새롭게 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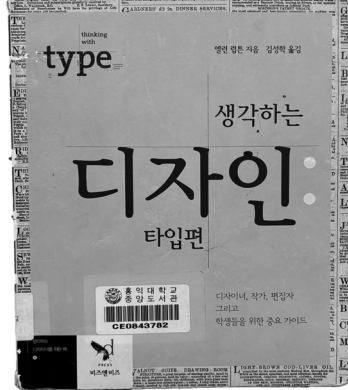
[표 3]과 같이, 이는 2007년 비즈앤비즈 출판사를 통해 『생각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책』 시리즈로 번역되었다. 이후 『그래픽 디자인 씽킹』, 『그래픽 디자인 새로운 기초』 등의 럽튼의 저서 10권이 원전과 거의 동일한 판형과 디자인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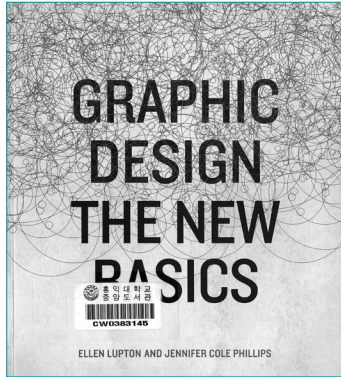
[그림 3] 판권 정보, 『Design Writing Research: Writing on Graphic Desig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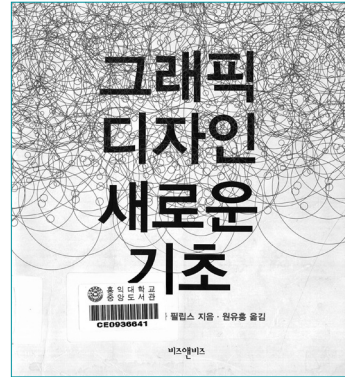
[그림 4] 『Thinking with Type (1st Edition)』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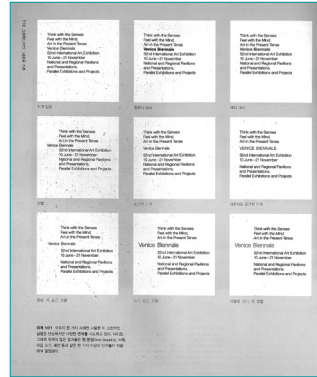
[그림 5] 『생각하는 디자인: 타입편』의 표지



[그림 6] 『Graphic Design: The New Basics』의 표지



[그림 7] 『그래픽 디자인 새로운 기초』의 표지



[그림 8] 『그래픽 디자인 새로운 기초』의 '위계, 내용 일부'

[그림 4, 5], [그림 6,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전과 번역서는 표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판형, 책 크기, 바인딩 스타일, 종이의 질감, 책 내 구성 방식, 쪽수까지 모든 면에서 일치하며, 내용만 한글로 번역된 형태를 취한다.

196197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래픽 디자인 새로운 기초』의 「위계」 부분에서는 타이포그래피의 위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로만 알파벳을 쓰는 럽튼은 책에서도 역시 알파벳을 기준으로 타이포그래피에서의 위계를 설명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강조법 중 하나인 “이탤릭체 사용”은 한글을 기반으로 디자인했을 때 구현할 수 없는 방식이다.²⁷ 이렇듯 사용 언어가 다른 점에서 생기는 디자인 실행에 관한 내용을 번역본에 기술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형화된 번역 방식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럽튼이 강조하는 “이론이 디자인의 생산물과 실천(실무)에 관여할 수 있는 방식”과 정반대로, 번역서는 디자인을 정적인 방법론으로만 제한한다.²⁸ 둘째, 한글 번역 과정에서 글자 크기와 문단 구성이 원전과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드 밖으로 빠져나오는 낱글자(고이나 과부)로 인해 독자의 읽기 경험을 저하시킨다. 이는 단순히 판형을 조정하거나, 맥락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럽튼의 저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결과물이 아닌 디자인 과정과 사고방식에 초점을 맞춘 점이다. 그러나 번역서에서는 럽튼의 철학적 배경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독자가 책을 단순한 디자인 가이드북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그래픽 디자인 씽킹』을 접한 독자의 블로그 리뷰에서는 “디자인 작업물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²⁹ 이는 저자가 강조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번역본이 저자의 철학과 맥락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럽튼의 원서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철학적 깊이나 학술적 담론의 실천으로 번역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실무에 도움을 주는 디자인 입문서로 번역 및 수용이 이루어진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해체주의를 철학, 언어학, 예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타이포그래피와 글쓰기에 관한 담론을 시작한 럽튼의 대표저작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리포트』의 경우, 미국의 동시대 시각 디자인에서 큰 중요성을 가지는 저서로 럽튼의 초기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저서이다. 그러나 국내의 시각 디자인 연구에서 럽튼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리포트』의 내용이나 사상이나 담론에 관한 내용을 인용한 연구는 거의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많은 번역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럽튼의 저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디자인 철학에 대한 고찰은 국내에서 디자인 연구자들보다는 학부생들 또는 실무에 바로 적용되는 디자인 방법론으로 이해되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럽튼의 저서는 그녀가 주장하고자 하는 다학제적 연구와 디자인 철학을 총체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단편적 수용으로,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용적 측면에 맞추어진 수용임을 알 수 있다. 럽튼의 번역본들은 디자인 이론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맥락으로 이해되지 못한 채 기획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2. 한국적 수용 경로와 문제점

엘렌 럽튼은 “디자인 과정은 지저분하다. 끝없는 실수와 재시작, 새로운 시도, 되돌아가기를

27 엘렌 럽튼, (원유홍), 『그래픽 디자인 새로운 기초』, 비즈앤비즈, 2005, p.116

28 Ellen Lupton, Abbott J. Miller, (1996), p. ix

29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씽킹_엘렌 럽튼 / 비즈앤비즈_2013.12.31., https://blog.naver.com/gb_scramble/223400120651 (2024.12.13.)

통해 상황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가는 여정이다.”라고 강조한다.³⁰ 럽튼의 저서 『그래픽 디자인 씽킹』에서는 프로젝트의 문제 정의 단계에서 전체 시간 중 반 이상을 할애하여, 형태를 만들기 전까지 충분히 사고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이는 디자인의 비선형적인 경로(Non-linear path to problem solving)를 따르며, 실수와 실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정임을 보여준다.³¹ 디자인은 정해진 공식을 사용해서 정답을 찾는 학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디자인 산업 내에서는 럽튼의 접근법과 같은 사고 중심의 이론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연구자가 미국 메리빌 대학교(Maryville University)에서 직접 경험한³² 디자인 교육 과정에서도 럽튼의 접근법과 유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디자인 교육은 프로젝트의 사전 조사와 맥락적 이해를 중시하며, 과제의 형식적 측면 (형태, 색 등 결과물 자체)에 집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프로젝트가 작동할 시스템과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도 동등하게 강조한다.³³ 이처럼, “과정에 대한 통찰은 창의적 작업의 의미를 증폭시킨다.”는 철학은 미국 디자인 교육과 럽튼의 철학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³⁴

그러나 한국에서는 럽튼의 저서가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 디자인 씽킹』과 같은 책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단순히 브레인스토밍 방법론으로만 받아들여지고, 비선형적 문제 해결 과정보다는 ‘정해진 정답 찾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시각 디자인 산업 내에서 시각 구현 기술만을 디자인 그 자체로만 인식하는 공통적인 편견과 함께, 디자이너와 독자가 결과물에 집착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로 이어진다.

박지나(2015)는 『디자인 평론』에서 「디자인으로 세상을 성찰하다」라는 글을 통해서 ‘성찰적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 디자인은 미술 수출이자 디자인 포장으로 성장 중심적 국부론이라는 사회적·경제적 맥락 속에서 급속도로 발전되어, 한국에서는 이론적 디자인 연구와 고찰이 실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³⁵ 고 설명한다. 또한 ‘디자인이 단순히 시각적 결과물을 생산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문학적 사유와 깊이를 더해 인간과 세상의 문제를 연결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성찰적 디자인’의 역사를 윌리엄 모리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빅터 파파네크 등을 통해 설명하며, ‘성찰적 디자인’의 거시적 역사관과 디자인이라는 학문의 유기적 관점을 제안한다.³⁶

이러한 맥락에서 럽튼의 저서를 읽어보면, 다양한 저서를 통해 나타나는 럽튼의 디자인 철학은 일종의 ‘성찰적 디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디자인은 이론과 실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대를 거치며 변화해 온 럽튼의 디자인적 관점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미국의 디자인 교육에서 나타나는

거시적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럽튼의 책은 15권이나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 일부만이 입문서 수준에서 번역되어 수용되었을 뿐, 그녀의 디자인 이론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이나 디자인 과정의 중요성 등 본질적인 럽튼의 철학은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럽튼의 철학과 담론을 표면적 방법론으로만 이해하게 만들어, 동시대의 디자인 담론에서 탈맥락적 수용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한국의 빠른 유행 문화와 무비판적 수용 관습은 표면상으로는 완벽한 문화 전이, 문화 수용처럼 보이지만, 본질적 이해보다는 표피적인, 겉보기만 모방하게 만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에서 시각 디자인은 산업을 위한 과정으로, 디자이너를 디자인 과정 전반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보다, 아직까지도 결과를 생산자만으로 국한하는 일련의 인식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럼튼이 “더 생각하고, 덜 디자인하라”고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³⁷ 디자인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를 단순히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이론과 담론을 거시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시각 디자인을 단순 기술로만 바라보는 산업적 시각과 타 문화를 수용하는 방식까지 모든 근본적인 인식이 전환이 요구되며, 그러한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해결될 문제이다.

4. 동시대 디자인 담론의 성찰적 수용을 위하여

지금까지 엘렌 럽튼의 철학과 디자인 담론이 한국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럽튼의 저서 4권을 원문과 비교·분석하여 미국의 맥락에서 구축된 럽튼의 디자인 담론이 한국에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와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양한 탈맥락적 수용을 통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럽튼의 원전 디자인 요소(표지, 지면 구성 등)를 정형화된 정답으로 복제하였으나, 한글의 언어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 독자가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점이다. 이러한 형식의 복제는 럽튼이 강조한 디자인 과정 자체를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의 특성과 한국적 디자인 문화를 반영한 유연한 ‘디자인적 번역’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번역 및 해석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의 선택적 또는 강제적 누락이다. 특히 영문·알파벳 중심으로 서술된 개념과 글꼴 활용 등의 내용이 번역본에서 생략되어, 맥락 이해를 저해했다. 이는 단순히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맥락을 보완하고 해석을 제공하는 번역자의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역할을 제시한다. 번역자는 독자에게 필요한 추가 정보를 판단하고 이를 보충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구 디자인 이론을 올바르게 수용하기 위해 ‘성찰적 디자인’의 태도가 요구된다. 럽튼의 철학과 담론은 미국의 사회적 배경이라는 맥락 속에서 시작되었기에, 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해당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럽튼의 디자인 담론을 미국적 방식 그대로 수용하거나, 단편적인 방법론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시각 디자인을 단순히 시각적 결과물로만

198199

30 Ellen Lupton, 『Graphic Design Thinking: Beyond Brainstorm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1, pp.4-5

31 Ellen Lupton, (2011), pp.4-5

32 연구자는 2017년부터 2021년간 미국 메리빌 대학교 (Maryville University)에서 인터랙티브 디자인(Interactive Design) 전공하면서 바우하우스 교육에 기반한 디자인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모든 예술·디자인 전공생은 첫 1년간 파운데이션(Foundation) 과정을 거치며 미술사, 디자인, 드로잉 수업을 통해 기초를 쌓고 디자인 씽킹을 접한다. 이후 2학년부턴 실기 수업을 통해 작품 제작을 시작한다.

33 Nancy Skolos, Tom Wedell, 『Graphic design process: from problem to solution: 20 case studies』, Laurence Kinf Publishing, 2012, pp.1-3

34 Nancy Skolos, Tom Wedell, (2012), p.5

35 박지나, 「디자인으로 세상을 성찰하다」, 『디자인 평론 1』, 최범, PaTI 디자인인문연구소, 2015, p.41

36 박지나, (2015), pp.41-42

37 2007 AIGA Medalist: Ellen Lupton, <https://www.aiga.org/membership-community/aiga-awards/2007-aiga-medalist-ellen-lupton>, (2024.12.13.): “Think more, design less.”

200201

인식하는 한국의 사회적 시선과 맞물려, 디자인 담론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립튼의 철학과 디자인 담론을 총체적 맥락에서 수용하고, 한국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 이론이 실무와 교육, 그리고 사회적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서구의 디자인 이론을 한국의 맥락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알파벳의 원리를 한글에 그대로 끼워 맞출 수 없듯이, 국외에서 형성된 디자인 담론을 한국적 맥락에서 설득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디자인 과정 자체를 비효율적 단계로 간주하지 않고 필수적인 사고 과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한 디자이너의 역할이 단순히 결과물을 만드는 기술자로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사고와 연구 과정을 수행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디자인 과정에서 사고와 이론적 연구의 중요성이 자연히 인식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변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한국 디자이너들의 끝없는 시도와 성찰을 통한 독자적인 디자인 담론 형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립튼의 한글 번역 저서 15권 중 임의로 선택된 4권만을 원문과 대조하여 분석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더 많은 예시와 다른 해석적, 맥락적 문제점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번역본의 기반이 된 정확한 원전 판권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번역본의 누락된 정보가 번역자의 선택인지, 원전의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립튼의 담론이 실제 한국의 디자인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각 디자인 교육 과정 및 수업 내용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립튼의 방법론이 실무와 학문적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더 넓은 의미에서 수용사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맥락에서 립튼의 철학과 담론을 재해석하고, 디자인 교육 및 실무에서 이를 심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로써 한국의 시각 디자인 문화가 더욱 풍부해지고, 국제적 맥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립튼의 역서 전체로 설정하여 더욱 깊이 비교 및 분석하여 다양한 탈맥락적 번역과 해석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대학의 디자인 교육 과정 내에서의 립튼의 디자인 담론의 수용 사례를 분석하여 더욱 확대된 수용사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디자인 담론의 수용사 연구 방법론이 동시대 디자인 이론과 담론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최범, (2018), 『최범의 서양 디자인사』, 안그래픽스
- 코디 최, (2010), 『20세기 문화 지형도』, 안그래픽스
- 박지나, (2015), 「디자인으로 세상을 성찰하다」, 『디자인 평론 1』, PaTi 디자인인문연구소
- 엘렌 립튼, 애봇 밀러, (2002),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리포트』, 이정선 역, 디자인하우스
- 엘렌 립튼, 제니퍼 필립스, (2009), 『그래픽 디자인 새로운 기초』, 원유홍 역, 비즈앤비즈
- 엘렌 립튼, (2012), 『그래픽 디자인 씽킹』, 이재선, 윤지선 역, 비즈앤비즈
- 엘렌 립튼, (1996), 『바우하우스와 디자인이론』, 박영원 역 도서출판국제

- 안주미·최익서, (2012), 「한국 디자인 정체성 논의의 향방: 1997년-2010년 개최된 국내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5권 1호, 한국디자인학회.
- 이봉만·나건, (2018), 「한·중·일 그래픽에 나타난 서구 디자인의 영향: 유입, 수용, 재해석 과정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6권 6호, 한국기초조형학회
- Lee Sanghun, (2002), 『Modernism and Post-colonialism in Korean Architectur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5 No.2,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Sven Schelwach, Changmyong Jeon, (2017), 「Contemporary Traditions: South Korea's Emerging Design Identity- An Exploration among Professional and Academic Design Experts Aged 30-50」, Archives of Design Research, Vol.30 No.3, Archives of Design Research
- Ellen Lupton, (2021), 『Extra Bold』,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 Ellen Lupton, (2011), 『Graphic design thinking: Beyond brainstorm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 Ellen Lupton & J. Abbott Miller, (1999), 『Design writing research: Writing on Graphic Design』, Phaidon
- Ellen Lupton & Jennifer C. Phillips, (2008), 『Graphic design: The new basics (1st ed.)』,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 Ellen Lupton & J. Abbott Miller, (1993), 『The ABCs of ▲■●: Bauhaus and design theory』, Thames and Hudson
- Phillip B. Meggs & Alston W. Purvis, (2016), 『Meggs' history of graphic design (6th ed.)』, John Wiley & Sons
- Skolos Nancy & Wedell Tom (2012), 『Graphic design process: From problem to solution: 20 case studies』, Laurence King Pub. Co.
- Richard Buchanan, (2001), 「Design Research and the New Learning」, Design Issues, Vol.17, No.4
- 그래픽 디자인 씽킹, 엘렌 립튼, 비즈앤비즈, (2013), https://blog.naver.com/gb_scramble/223400120651
- Design Couples: Ellen Lupton and Abbott Miller, <https://www.printmag.com/designer-interviews/design-couples-ellen-lupton-and-abbott-miller>
- Ellen Lupton, <https://www.mica.edu/undergraduate-majors-minors/graphic-design-major/ellen-lupton>
- Ellen Lupton, <https://ellenlupton.com/Curriculum-Vitae>
- Steven Heller, <https://design.sva.edu/cofaculty/steven-heller>
- Thinking with Type: A Primer for Designers: A Critical Guide for Designers, Writers, Editors & Students—Softcover <https://www.abebooks.com/9781568984483/Thinking-Type-Primer-Designers-Critical-1568984480/plp>
- 2007 AIGA Medalist: Ellen Lupton, <https://www.aiga.org/membership-community/aiga-awards/2007-aiga-medalist-ellen-lupton>